

**\*남편이라는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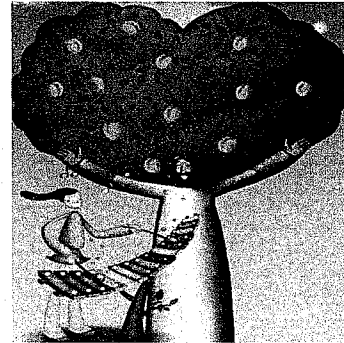
언젠가부터 내 옆에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내 것을 포기 한다는게  
 이렇게 힘든 것 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했고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느꼈기에  
 이 정도의 짜증과 심술은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또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병들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무의 고통스러함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무를 보살피는 사이에,  
 나무에게 짜증과 심술을 부리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b>갈 보 리 교 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9권 1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4월 15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진화 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고대 희랍 철학자 아낙시스만도로스는 다윈보다 앞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나아가서 짐승이 동물, 파충류, 개구리, 물고기다. 그리고 물고기는 저절로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만물은 결국 쪼개어 나가면 원자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신(神)이란 것은 없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 맞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해체되면 아무 뜻도 없는 원자로 남겨집니까? 물과 공기와 흙을 적당히 섞어 거기에 햇빛 쬐어 주고 비를 내려주고 데웠다가 식혔다가 천둥치고 번개치고...날이 가고 달이가고 해가 가면 저절로 물고기며 식물이며 사람이 나타나고 또 꽃과 새들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내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생명의 신비와 귀중함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떠서 태어난 신비의 생명체들입니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주일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57 장	다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2(시 32)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197 장	다같이
기도 Pray		이재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4:3-7/히11: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아벨의 믿음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361 장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총액:\$312,225

### ◆4월 예배위원◆

### ◆4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응답송	안내	주일	예배와 모임
1	이금선		본당:권사	1	종려주일
8	윤주야	목회자	현관(1)김교섭 최재학		성금요연합예배(6) 야동부캠프(6-8)
15	이재영		현관(2)장현중 정덕수	8	부활주일
22	임병수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2	여선교회월례회
28	임혜자		윤주야 장유진	29	남선교회월례회.

『교회생활』	『교회등록』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1. 1월, 2월, 3월에 등록하신 새가족 전체 모임이 오늘 예배후 Dress Room에서 있습니다. \* 주관 : 새가족부 ( 이광희 장로 )
2. 제 4 여전도회 월례회  
\* 일시 : 4월21일 (토) 12시 30분  
\* 장소 : 정이지 집사 ( 1/163 Glendhu Rd. Glenfield Ph) 442-5555 )
3. YFC 주관 청소년 수련회에 갈보리 학생부가 참가하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 갈보리동호회 산행(예고) <일시> 21일(토) Totara Park & Botany Garden  
\*정글같은 수목림, 만여종의 꽃과 새...1시간 동안 황홀히 즐길 수 있습니다
5. 2007년 갈보리 교회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예배후에 입구에서 한가정당 한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더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문의 하십시오 )

### ◀착한 시인들▶ 노을

이동진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 입은 가을 언덕에  
빨갭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짓고  
초가 지붕 둥근 박 꿈꿀 때  
고개 숙인 논밭의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가을 바람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 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타는 저녁 늘

가을걸이를 마친 들녘에서 피어오르던  
저녁연기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냥 고향의 향기라고 불러도 좋을  
구수한 흙냄새와 어우러진 연기속을  
뛰어 다녔던 추억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깊어만 가는 뉴질랜드의 투명한 가을  
밤에 가만히 입모아 노래를  
불러봅니다  
"바~아~람이 머~어물다간 들판에~~"